

수도권 전원 및 단계별 치료 가이드: 울산 → 서울/수원

전원 추진 배경 및 목적 (Why Transfer?)

본 전략은 환자의 의학적 골든타임과 보호자의 현실적인 여건(휴직 등)을 고려하여 수립되었습니다.

- 정밀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:** 급성기 처치는 완료되었으나, 상급종합병원의 심층 검사를 통해 뇌경색의 근본 원인을 찾고 재발 위험을 원천 차단해야 합니다.
- 재활 골든타임 사수:** **발병 초기 3개월**은 뇌신경 회복의 사활이 걸린 시기입니다. 이 기간만큼은 수도권의 최상급 재활 인프라를 활용하여 기능을 극대화해야 합니다.
- 가족 간병 최적화 (서울 1.5개월):** 보호자의 남은 휴직 기간(약 1~1.5개월)을 활용하여, 초기 집중 치료 기간 동안 서울에서 **밀착 간병**을 수행합니다.
- 지속 가능한 케어 (수원):** 휴직 종료 후에는 자택과 가깝고 의료 수준이 높은 **수원 아주대병원 권역**으로 이동하여, 일상생활과 환자 케어를 병행합니다.
- 연고지 복귀 (울산):** 충분한 입원 재활을 마친 후에는 연고지인 울산으로 복귀하여, 익숙한 환경에서 유지 관리를 이어갑니다.

전략 개요 (Executive Summary)

환자의 의학적 상태와 보호자의 여건에 따라 다음 두 가지 접근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.

1. 제1안: 상급종합병원 간 전원 의뢰 (Fast Track)

- 개념:** 현재 병원(동강)에서 삼성서울병원으로 **직접 전원(입원)**을 의뢰하는 방식입니다.
- 특징:** 가장 이상적이지만, 병상 부족 등으로 인해 수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.

- **추천:** 환자 상태가 불안정하거나, 대학병원의 즉각적인 집중 치료가 필수적인 경우에 우선 시도합니다.

2. 제2안: 권역별 단계적 치료 (Stable Track)

- **개념:** '재활병원 입원'을 먼저 확정 짓고, '대학병원 외래'를 병행하는 현실적인 대안입니다.
- **특징:** 입원 대기 없이 즉시 재활을 시작할 수 있으며, 주거지 근처에서 환자를 케어 할 수 있어 안정적입니다.
- **추천:** 장기적인 재활 치료가 주된 목적이며, 갑작스러운 전원 거절 리스크를 피하고 싶은 경우에 적합합니다.

제1안. 상급종합병원 간 전원 의뢰 (Hospital-to-Hospital)



"동강병원 의료진을 통해 삼성서울병원으로 정식 전원을 요청하는 안전한 방식"

- **방식의 핵심:** 환자가 서류를 들고 무작정 상경하는 것이 아니라, **현재 병원(동강)**에서 **서울 병원(삼성)으로 의학적 소견을 먼저 보내고 입원 승인을 받은 뒤 이동**하는 방식입니다.
- **성공 핵심:** 현재 주치의(동강병원)가 "환자의 상태가 위중하거나, 상급 병원의 정밀 진단이 반드시 필요하다"는 소견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전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.

1. 진행 절차 (Step-by-Step)

1. **주치의 면담 (동강병원):** 회진 시 주치의에게 "삼성서울병원으로 전원을 원합니다. 병원 진료협력센터를 통해 정식으로 전원 의뢰를 넣어주십시오"라고 요청합니다.
2. **전원 의뢰 발송:** 동강병원 진료협력팀이 삼성서울병원 파트너즈센터 (02-3410-3000)로 환자의 의무기록과 전원 소견서를 발송합니다.

3. 심사 및 결정: 삼성서울병원 신경과 교수진이 자료를 검토한 후 '전원 수용 가능 여부'를 동강병원으로 통보합니다.

- 승인 시: 입원 날짜가 정해지면 그에 맞춰 사설 구급차로 안전하게 이동합니다.
- 거절 시: 제2안(단계적 전원)으로 즉시 선회하여 재활병원(청담/베데스다) 입원을 진행합니다.

2. 리스크 관리 (대안 마련)

- 승인 대기 중 행동요령: 의뢰 후 답변까지 수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. 마냥 기다리기 보다 제2안의 재활병원 입원 예약(D-Day 잡기)을 병행하는 것이 시간 낭비를 막는 길입니다.
-

[핵심 전략] 전원 스케줄링 골든타임 (Scheduling)

"무엇을 먼저 예약해야 할까? : 재활병원 베드 확보가 0순위입니다."

수도권 인기 재활병원은 대기(Waiting)가 1~2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. 반면 대학병원 외래는 비교적 날짜 조정이 유연합니다. 따라서 다음 순서로 일정을 잡아야 '길바닥에서 대기하는 사태'를 막을 수 있습니다.

1. Step 1. 재활병원 입원일 확정 (D-Day 설정)

- 오늘 당장 청담/베데스다 등 후보 병원에 팩스(소견서)를 보내고 "입원 가능한 날짜"를 확정 받으십시오. 이 날짜가 전원 D-Day가 됩니다.

2. Step 2. 대학병원 외래 예약 (D+5일)

- 재활병원 입원일로부터 약 3~5일 뒤로 삼성서울/아주대병원 외래를 잡으십시오.
- 이유: 울산에서 올라와 짐을 풀고, 환자가 새 병원 환경에 적응할 최소한의 시간(Buffer)이 필요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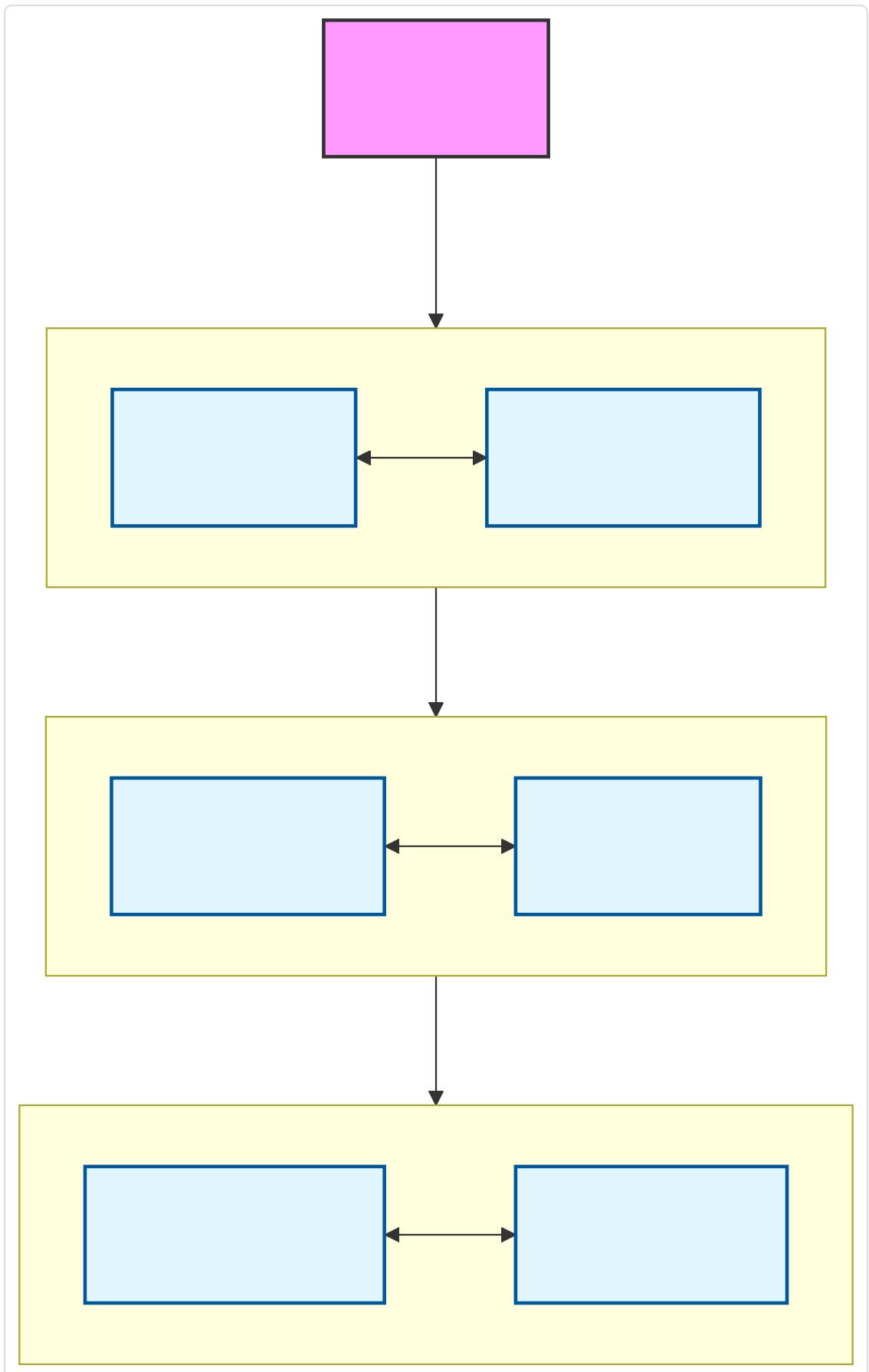
3. Step 3. 이동 수단 예약 (D-3일)

- 날짜가 핍스되면 사설 구급차를 예약합니다.

Tip: 대학병원 교수님 진료가 1달 이상 밀려 있다면? 무리하게 교수 진료를 고집하기보다, '일반의(General Doctor) 초진'으로 가장 빠른 날짜를 잡으십시오. 어차

피 첫 방문은 MRI/피검사 오더가 주목적이므로, 검사를 먼저 진행해두면 교수님 진료가 훨씬 수월해집니다.

제2안. 권역별 단계적 치료 (Sequential Transfer)



"동강병원에서 잡아준 외래 일정에 맞춰, 서울/수원 재활병원으로 이동하는 로드맵"

- **특징:** 환자가 개별적으로 예약하는 것보다, 동강병원 진료협력센터를 통해 삼성서울병원 외래(Fast Track)를 먼저 잡고, 그 일정에 맞춰 재활병원 입원을 조율하는 방식입니다.

1단계: 서울권역 집중 치료 (초기 1~2개월)

- 초기 진입 전략 (Entry Strategy):

1. **의뢰 (동강→삼성):** 동강병원 주치의를 통해 삼성서울병원 '협진 외래 (Consult)'를 의뢰합니다.
2. **예약 확정:** 삼성 측에서 외래 진료 날짜가 통보되면, 이를 기준점(Anchor)으로 삼습니다.
3. **재활 입원:** 확정된 외래 날짜보다 2~3일 전으로 청담병원 입원 수속을 밟습니다.

- **입원 병원 (재활):** 청담병원 (삼성서울병원 인근)

- **외래 진료 (협진):** 삼성서울병원 신경과

- 청담병원 입원 상태에서 외출을 통해 삼성서울병원 외래 진료를 봅니다.
- 이 시기에 뇌경색의 정확한 원인(심장 질환, 혈관 기형 등)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 약물을 최적화합니다.

2단계: 수원권역 생활 안착 (안정기)

- **목표: 보호자 주거지 인근 안착 및 장기 재활**

- **이동 시점:** 삼성서울병원에서의 검사 및 급성기 치치가 종료되고, 환자 상태가 안정화되어 자녀 거주지(수원) 근처로 이동할 때.

- **입원 병원 (재활): 베데스다병원 또는 아주대요양병원**

- 수원 영통/광교 지역에 위치하여 가족 면회 및 정서적 지지에 유리합니다.

- **외래 진료 (협진): 아주대병원 신경과/재활의학과**

- 장기적인 만성기 질환 관리 및 응급 상황 발생 시 아주대병원을 이용합니다.
- 이전 병원의 진료 기록을 이관하여 진료의 연속성을 유지합니다.

[이동 가이드] 2단계(수원) → 3단계(울산) 복귀 절차

- **행정 절차:**

1. **통합 소견서 확보:** 삼성서울병원과 아주대병원에서의 진료 내용이 모두 포함된 최종 소견서(또는 각 병원 소견서)를 챙깁니다.
2. **영상 자료 (CD):** 서울/수원에서 촬영한 추가 MRI/CT가 있다면 반드시 CD로 구워야 합니다 (중복 검사 방지).

3. 사전 연락 (동강병원): 복귀 1주일 전, 동강병원 신경과(기존 주치의)에 연락하여 외래 진료 일정을 잡습니다.
- 이동 수단 (장거리):
 - 거리/시간: 수원 → 울산 (약 300km, 차량 4시간 이상 소요).
 - 권장 수단: 장시간 이동은 환자에게 무리가 되므로 반드시 **사설 구급차(누워서 이동)**를 이용해야 합니다.
 - 비용/준비: 비용은 약 40~50만 원 예상되며, 기저귀와 물, 비상약(멀미약 등)을 준비하십시오.

3단계: 울산권역 복귀 (지역사회 안착)

- 목표: 일상 복귀 및 지속적인 유지 관리
- 이동 시점: 수도권에서의 정밀 검사와 집중 재활이 종료되고, 환자의 기능이 고착화되어 익숙한 고향으로 복귀할 때.
- 관리 병원: 울산 자택 (통원) 또는 강남동강병원 (입원)
- 외래 진료 (주치의): 동강병원 신경과
 - 수도권 대학병원의 최종 소견서와 영상 자료를 동강병원 의료진에게 전달합니다.
 - 지역 거점 병원에서 장기적인 약물 처방과 합병증 관리를 지속합니다.

[공통] 전원 절차 및 준비 사항

어떤 안을 선택하더라도 다음의 준비 사항은 동일합니다.

1. 울산 동강병원 준비 서류 (퇴원 1주일 전)

1. 진료의뢰서(요양급여의뢰서) 2부 이상: 전원할 재활병원 제출용 1부, 대학병원 외래 지참용 1부.
2. 영상 기록 CD: MRI, MRA, CT 등 촬영된 모든 영상 자료 (원본 화질).
3. 의무기록 사본: 초진기록지, 입퇴원요약지, 검사결과지(혈액, 초음파 등), 투약기록지.

2. 환자 이송 절차 (D-Day)

- 이송 수단: 사설 구급차 이용 권장 (비용 약 40~50만 원 예상)
- 예약 방법: 동강병원 원무과 문의 또는 '울산 사설 구급차' 검색 후 최소 3일 전 예약 확정.

• 유의 사항:

- 장거리 이동(약 4~5시간)에 대비하여 기저귀를 착용하십시오.
- 소뇌경색 환자의 어지럼증 예방을 위해 출발 전 멀미약 복용 여부를 의료진과 상의하십시오.
- 응급 상황 대처를 위해 보호자 1인이 반드시 동승해야 합니다.

3. [특별 부록] 거동 불편 환자의 외래 이동 가이드

"재활병원 입원 중에 대학병원 외래를 가야 하는데, 환자가 걷지 못한다면?"

1. 사설 구급차 (Private Ambulance)

- 권장 대상: 휠체어 탑승이 어렵거나 침대 이동이 필요한 와상 환자.
- 비용 (왕복): 약 10~15만 원 예상 (기본요금 + 거리 비례).
- 이용법: 재활병원 원무과에 '외래 진료용 구급차' 호출을 요청하면 연결해 줍니다.

2. 장애인 콜택시 (Disabled Call Taxi)

- 권장 대상: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환자. (일반 택시보다 저렴)
- 이용 조건:
 - 서울 (나비콜/엔콜): 보행상 장애가 있는 중증 장애인. (장애 등록 전이라도 '뇌병변 진단서'로 심사 가능)
 - 수원 (한아름콜): 휠체어를 이용하는 대중교통 이용 약자.
- Tip: 장애 등록이 아직 안 되었다면, 진료 시 의사에게 "장애인 콜택시 이용을 위한 보행 장애 진단서" 가능 여부를 문의하십시오.

[부록] 수도권 권역별 추천 재활병원 상세

1. 서울 (삼성서울병원 권역)

• 청담병원 (보건복지부 지정 재활의료기관)

- 특징: 전문적인 재활 시스템 및 삼성서울병원과의 높은 접근성 (차량 약 20분).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으로 간병 비용 절감 가능.
- 예상 비용: 월 130~150만 원 내외 (입원료 및 간병비 포함).
- 위치: 강남구 청담동

• 강남구립 행복요양병원

- 특징: 강남구청 설립 공공병원, 쾌적한 시설 및 로봇 재활 장비 보유. 공동간병(유료) 운영.
- 예상 비용: 월 250만 원 이상 (간병비 전액 본인 부담).

- 위치: 강남구 세곡동 (삼성서울병원 차량 10분 거리)

2. 수원 (아주대병원 권역)

• 베데스다병원 (보건복지부 지정 회복기 재활의료기관)

- 특징: 수원 지역 회복기 재활 거점 병원.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.
- 예상 비용: 월 130~150만 원 내외.
- 위치: 수원시 영통구

• 아주대학교요양병원

- 특징: 아주대병원과 긴밀한 연계, 응급 상황 대처 용이. 공동간병 위주.
- 예상 비용: 월 250만 원 이상.
- 위치: 수원시 영통구 (아주대병원 인근)